



**2015년 11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전주대, 2015 역사학도를 위한 진로 및 취업 박람회**

- 날 짜 : 2015년 11월 11일(水) 14시 ~ 16시
- 장 소 :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다목적홀
- 내용 :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K-History 핵심인력양성사업단에서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및 취업 설계에 관한 정보 공유, 진로상담을 통한 조기진로 설계 및 취업 가능성 확대를 목적으로 취업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원도 박람회에 참가하여 진로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 진안지역자활센터 인문학 강좌

- 날 짜 : 2015년 11월 13일(金) 10시 ~ 12시

- 장 소 : 진안지역자활센터 2층 교육장

- 내 용 : 연구원과 진안지역자활센터는 11월~12월에 다섯 차례의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첫 번째로 임숙정 연구실장이 진안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의의"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였음에도 경청해 주시는 모습은 앞으로 남은 네 차례의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금 생각을 여미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40회 연구원 문화강좌 안내

- 날 짜 : 2015년 11월 28일(土) 16시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 사 : 윤상원(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 주 제 : 고려인, 그들은 누구인가?

##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내 용 :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동북아역사재단 사업이 11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6일까지 재단측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연구원 회원 소식

###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역할과 복원 및 활용” 학술대회

- 날 짜 : 2015년 11월 13일(金) 09시~18시
- 장 소 : 전주대학교 평화관 평화홀
- 내 용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한국고문서학회가 주관하고 전라감영복원 재창조위원회가 후원하는 “조선시대 전라감영의 역할과 복원 및 활용”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1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홍성덕 부원장, 이해령 회원이 발표를, 문경득 회원, 강지혜 회원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 발표 : 홍성덕 부원장 - 전라감영 복원과 콘텐츠 활용방안  
이해령 회원 - 1833년~1834년 전라도 관찰사의 검안 처리 업무
  - ▶ 토론 : 문경득 회원(발표 : 김순석 - 전라감영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강지혜 회원(발표 : 김명화 - 조선후기 전라감사의 사액서원 관리)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1월 16일(월) : 주간회의, 동북아재단 독도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11월 18일(수) : 전라감영 재창조위원회 전체회의

## ■ 역사속의 오늘

### ○ 을씨년스러웠던 그날의 젊은 목사 - 1905. 11. 18

: 을씨년스럽다는 말의 어원이 '을사년(乙巳年)스럽다'라는 얘기가 있다. 1905년 11월 18일은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족할 만큼 섬뜩한 한기가 돌던 초겨울이었다.

그날 아침이 밝아오기 훨씬 전인 새벽 2시. 일본의 압력과 대신들의 강요에 견디다 못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문서에 옥새를 내어 준 것이다. 조약 문서에 기록된 날짜는 17일이지만 고종이 굴복한 날, 그리고 조약이 공포된 날은 11월 18일이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식물국가가 된다.

을사늑약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흥분해서 거리로 뛰쳐나와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한 떼의 사람들이 대한문 앞에 꿇어 엎드려 절규했다. 그들은 도끼를 떠메고 있었다. 대개 "역적의 목을 치든지 내 목을 치든지"라는 극단적인 뜻을 상주하는 이른바 '도끼 상소'였다. 그들은 대개 기독교인이었고 상동교회라는 교회의 청년회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인솔한 것은 그 교회의 목사 (이 당시는 전도사였다고도 한다) 전덕기였다.

전덕기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남대문 시장 숯장수였던 숙부 슬하에서 자랐다. 그런 그의 인생에 서광이 비친 것은 스크랜튼이라는 감리교 선교사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면서 부터였다. 스크랜튼은 양반 동네에 외국인도 많은 정동에서 교회를 꾸리다가 "where people are(민중이 있는 곳)" 인 남대문 안 상동으로 교회를 옮겨 버릴 정도로 가난한 민중들에게 다가서고자 했던 기독교인이었다. 전덕기는 그로부터 감화를 받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다. 새로 이전한 상동은 상놈들의 동네였고, 전덕기는 '애민구휼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극빈자들에게 삶의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한다. 여기까지는 전덕기 자신이 "뼈 속까지 닳고 싶다"고 했던 스크랜튼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전덕기는 뼈 속까지 한국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을사늑약 체결 이전이던 11월 10일, 일본이 남산에 대포를 설치하고 덕수궁을 겨냥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무렵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개최하여 열렬히 기도를 올린다.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에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토록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는 평안도 교인들을 조직하여 오적 암살을 모의하고 무장 투쟁을 고무하기도 했던 것이다. 일제가 보기에 그는 당연히 목사 옷을 벗어야 하는 사이비 목사였다.

헤이그로 파송되는 이준도 상동교회에 찾아와 그 임무의 성공을 함께 빌었고,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신민회를 설립하여 대한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일제에 저항했다. 훗날 삼일 운동 후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보고서는 상동교회를 "조선 독립 운동의 근원"으로까지 꼽았다. 전덕기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전덕기는 경술국치 후 민족운동의 뿌리를 뽑으려는 일제에 검거되어 모진 고문을 받는다. 그 후 1914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고문 후유증과 결핵으로 인한 병마에 시달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마치 바울처럼 편지를 보내는 '병상 목회'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서울 장안은 슬픔에 휩싸였다.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모를 초상꾼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관을 잡고는 목놓아 울었다. 가장 슬퍼한 것은 남대문 일대의 거지들 알짜들, 불한당 소리 듣던 이들이 껴끼이 눈물을 흘렸고, 기생들도 소복을 입었으며 차별은 없어졌으며 여전히 사람 취급에서 벗어나 있던 백정들도 소울음을 울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 상여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 리를 헤아렸다고 한다.

나이 마흔도 안된 젊은 목사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 것에는 마땅히 이유가 있으리라. 망해 가는 나라를 구해 달라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고 도끼를 들고 달려나가 "조약을 거두시든지 내 목을 치라"고 자신의 황제에게 호소하던 목사.

1905년 11월 18일 그 '을씨년스럽던' 날에 한 젊은 목사가 도끼를 들고 대한문 앞에 엎드렸다.

## ○ 근대 조폭(組暴)의 원조 - 1972. 11. 21

: 그는 깡패였다. 깡패답게 단순했고 잔인했다. 그가 전평 파업 당시 파업 노동자들이 있던 용산역을 습격, "죽창으로 전평(좌익의 전국노동자평의회) 대원을 죽이고 묻은" 것은 사실이었고, 46년 10월 대구사건(혹은 10월 봉기라는 시각도 있음) 때는 청년단을 이끌고 대구로 가서 악명을 떨쳤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먹패로 절친한 이까지 좌익이라는 이유로 살해한다. 결국 살인죄로 미국 군정에 체포된 후 사형을 선고받지만 장택상 등의 비호로 살아남는다.

머리는 비상했다고 하지만 그 비상함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 단순한 성품이었던 그는 좌익을 척살하는 것을 구국의 길로 알았고 우익들은 그가 칼을 휘두르고 죽창을 쏘고 돌아오면 "동지! 당신이 나라를 구했소"(장택상) 라며 그 단순 무식 과격한 깡패를 칭찬했다. 이는 그 후 정치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할 때 "나라 위해 큰일 해 보지 않겠나?"라고 회유하는 그 방식 그대로다.

볼 장 다본 깡패들이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것도 당연한 과정인데, 그도 그랬다. 칭찬을 기대하며 이승만에게 불려간 그는 "사람 좀 그만 죽이게." 하는 핀잔을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떤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손이 칼더러 "피 그만 봐라."고 다그치는 격이었으니 그 속을 짐작할만 하다.

전쟁 이후 그는 "나는 무식하다. 하지만 인생은 영원한 미완성이 아닌가." 는 너무나 솔직한 유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당선 3일 만에 감옥에 갇힌다. 이승만 정권을 선거운동 도중 정면으로 비판한 과썸죄에 걸렸던 것이다. 정계에 발을 디딘 후 그의 행적 역시 '그 다운' 것이었다. 적어도 국회 단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데리고 있는 측근자들은 모두가 일제 관료출신들이니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의 보스다."고 속 시원하게 퍼부은 사람이 그였고, 정부 관료에게 똥물을 퍼부으며 성토했던 행동 역시 '깡패'였던 그가 벌인 일이었다.

한국 현대사의 질풍에 휘말려 버린, 그리 생각은 깊지 못했으나 비열하게 머리를 쓰는 법 또한 알지 못했던 한 사내가 1972년 11월 21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삼둥이' 아빠 송일국의 외조부다.